

후기 청소년들의 부모-자녀갈등의 특징과 부모양육행동의 관계*

박 영 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93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문제체크리스트와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부모-자녀 갈등의 특징과 부모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갈등이 있었던 문제 수는 비교적 적었고, 갈등의 빈도와 강도도 낮은 편이었다. 갈등이 있었던 문제 수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갈등의 빈도와 강도는 고등학생에서 더 높았다. 갈등이 가장 심했던 문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성적 및 진로였고, 그 다음은 고등학생에서는 방청소, 활동 및 활동통제, 취침 및 귀가시간 등이었으며 대학생에서는 돈 문제, 대인관계, 외모 및 건강이었다. 청소년들은 갈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주로 심리적 및 개인적 이유로 설명하는데 반해 부모의 입장을 주로 도덕적, 사회·관습적 및 분별적 이유로 설명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갈등은 청소년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절충 및 타협으로 비슷하게 해결되었으나 고등학생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정도가 높았다. 부모의 심리통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부모갈등과 관련성을 보인데 반해 행동통제는 대학생의 부모갈등과 관련성을 보였다. 부모의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갈등의 강도가 증가하고, 청소년들이 갈등해결방법을 덜 공정하고 더 부정적이라고 여겼으며 부모의 행동통제를 받을수록 갈등의 강도가 감소하고 갈등해결방법을 더 공정하게 여겼다.

주요어 : 청소년, 부모-자녀 갈등, 사회영역이론, 부모양육행동

* 이 연구는 2014년 동일문화장학재단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영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E-mail : yoshpark@knu.ac.kr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Erikson, 1968). 이 과정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일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이때까지 자신이 의지해 왔고 또 자신을 통제해 왔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의 과정은 청소년과 부모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독립하는 것을 대견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자녀들을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통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동시에 부모의 통제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할 뿐 아니라 부모와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서기를 원한다(De Goede, Branje, & Meeus, 2009; McGue, Elkins, Walden, & Iacono, 2005).

이처럼 청소년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청소년과 부모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청소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발달이나 심리적 적응에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와 갈등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이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를 많이 보였고(Branje, van Doorn, van der Valk, & Meeus, 2009; Pelton & Forehand, 2001; Robin & Foster, 1989), 심리적 건강에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Shek, 1997; 1998), 자아존중감도 떨어졌고 위험한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Tucker, McHale, & Crouter, 2003). 따라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 부모-자녀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자녀 갈등의 일반적 양상

부모-자녀갈등은 청소년기 초기(10~12세), 중기(13~16세)와 후기(17~22세)에 걸쳐 변화한다. 청소년기 후기로 가면서 갈등의 빈도는 감소하지만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청소년기 중기로 가면서 더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Laursen, Coy, & Collins, 1998). 즉,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와 갈등의 빈도는 감소하였지만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부모-자녀 갈등은 문화적 배경에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Fuligni, 1998).

부모-자녀 갈등의 흥미로운 부분은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문제체크리스트(Prinz, Foster, Kent, & O'Leary, 1979; Robin & Foster, 1989)나 개인면접으로 많이 조사되었다. 문제체크리스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44개의 문제(예, 방청소, 돈을 어떻게 쓰는지, 형제나 자매와의 싸움)를 제시하고 각 문제에 대해 지난 2주 동안 부모와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등을 물어본다. 11세에서 14세 미국 청소년들은 다른 문제보다 집안일 하기, 활동의 선택, 대인관계, 방치우기, 학업의 순서로 부모와 갈등을 보였다(Allison & Schultz, 2004; Smetana, Daddis, & Chuang, 2003; Smetana & Gaines, 1999).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숙제나 학교성적, 형제자매 관계, PC게임, 자기방 청소, TV시청과 음악듣기의 순서로 부모와 갈등을 보였다(공인숙, 이은주, 이주리, 2005).

개인면접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부모와 갈등이 있었던 문제들을 열거하게

하고 각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게 하였다. 11세에서 17세 미국 청소년들은 집안일하기, 대인관계, 활동의 통제, 성격특성, 학업의 순서로 부모와 갈등을 겪었다(Smetana, 1989). 12세에서 18세 홍콩 청소년들은 활동의 통제, 집안일하기, 학업, 대인관계의 순서로 부모와 갈등이 많았고(Yau & Smetana, 1996) 심천에 살고 있는 11세에서 18세 중국 청소년들은 활동, 학업, 집안일하기, 대인관계, 외모 및 건강의 순서로 부모와 갈등을 보였다(Yau & Smetana, 2003).

이처럼 문화권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은 주로 집안일하기, 대인관계, 활동, 학업과 같은 일상적 문제들로 부모와 갈등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권에 따라 갈등의 순위에 차이가 있어서 미국이나 홍콩 청소년보다 중국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해 부모와 갈등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집안일하기와 학업에 대한 갈등은 연령과 더불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Smetana, 1989; Smetana et al., 2003; Yau & Smetana, 2003).

부모-자녀 갈등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입장

부모-자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상적 문제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의 입장의 차이이다. 사회영역이론(social domain theory)은 갈등에 대한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여 왔다(Smetana, 2006; Turiel, 1983). 사회영역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크게 도덕적 영역, 사회·관습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으로 구분된

다. 도덕적 영역은 주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행복과 관련되고, 사회·관습적 영역은 주로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과 관련된다. 개인적 영역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과는 무관하며 행위자 자신과만 관련된다. 예를 들어, 친구를 따돌리는 일은 도덕적 영역의 문제이지만 어른에게 인사를 하는 일은 사회·관습적 영역의 문제이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옷을 입을지는 개인적 영역의 문제이다. 특히 개인적 영역은 청소년들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장이며 동시에 청소년이 자신의 자율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부모와 대결하는 장이기도 하다(Helwig, 2006).

부모와 청소년 모두 도덕적 영역, 사회·관습적 영역과 청소년의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분별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청소년들도 부모에게 순종한다(Assadi, Smetana, Shahmansouri, & Mohammadi, 2011; Smetana, 1988; 2000).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사회·관습적 영역, 분별적 영역, 특히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데 반해 부모들은 여전히 자신이 이런 문제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Darling, Cumsille, & Martínez, 2008; Nucci, 1996; Smetana, 1988, 2000; Smetana & Asquith, 1994).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일상적인 삶의 여러 문제에서 부모-자녀 갈등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증폭시킨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갈등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상적인 갈등을 제시하고 청소년과 부모에게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게 하자 청소년들은 주로 개인적 이유로 설명했으며 이런 경향은 연령에 따라 증가

하였고, 부모들은 주로 도덕적 이유, 사회·관습적 이유나 실용적 이유로 설명하였다(Smetana, 1989; Smetana, et al., 2003; Smetana & Gaines, 1999). 예를 들어, 방을 치우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은 자기 방이기 때문에 청소할지 말지는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거나 방 치우는 것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반해 부모는 자녀가 방을 치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하므로 민폐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갈등에 대한 부모의 입장을 추론해보게 하였을 때에도 부모의 입장을 사회·관습적 이유, 실용적 이유나 분별적 이유로 설명하였다(Smetana, 1989; Yau & Smetana, 1996).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집단주의적 문화권에 속하는 홍콩과 중국에서도 발견되었다(Chen-Gaddini, 2012; Yau & Smetana, 1996, 2003).

부모-자녀 갈등의 해결방안

부모-자녀 갈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청소년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양쪽 입장을 절충이나 타협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질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벌을 받을 수도 있다. 부모-자녀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자체가 부모-자녀 갈등의 중요한 측면일 뿐 아니라 앞으로 갈등이 일어날 정도나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거나 서로 거리를 두는 것과 같이 철수(withdraw)의 방법을 사용하면 청소년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더 커졌다(Branje et al., 2009).

부모-자녀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바

람직한지를 물어보았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나 실제로는 문화권에 관계없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에서는 그 비율이 60%에 달했다(Smetana et al., 2003;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2003). 그렇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정도는 감소하는 대신(Smetana & Gaines, 1999) 전체적 비율이 낮기는 하였지만 타협이나 절충을 통해 해결되는 정도는 증가하였다(Smetana et al., 2003).

부모-자녀 갈등과 부모양육행동

부모-자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폭넓게 이루어져왔다(Eisenberg et al., 2008).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아 온 요인은 역시 부모양육행동이다.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이나 애정을 받을수록 고등학생과 부모의 갈등은 감소하였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을 받을수록 갈등이 증가하였다(황영은, 도현심, 2004). 또한 부모와 의사소통이 어려울수록 갈등이 더 커졌다(공인숙 등, 2005). 아프리카계 미국, 홍콩과 이란 청소년들도 부모가 통제를 많이 하고, 권위주의적이고, 따뜻하지 않을수록 갈등이 더 많았고 갈등강도도 더 높았다(Assadi et al., 2011; Smetana, 1995;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Barber, Stolz와 Olsen(2005)는 부모양육행동을 부모지지, 심리통제, 행동통제의 세 차원으로 정리하면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성을 연구한 바 있다. 부모지지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는 양육(nurturance), 온

정(warmth)과 정서(affect)를 말한다. 심리통제는 청소년의 생각, 감정, 자기표현이나 부모에 대한 애착을 간섭하고 조정하려는 시도로서 (Barber, 1996, 2002)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억제하거나, 감정을 무력화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애정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Barber & Harmon, 2002). 행동통제는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모의 시도를 말한다. Barber등(2005)과 이후 연구(이은경, 박성연, 2011; Barber, 1996; Pettit, Laird, Bates, Dodge, & Criss, 2001)에서 부모지지와 행동통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심리통제는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 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포함한 부정적 발달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부모-자녀 갈등의 주요 원인은 청소년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허용하고 지지하는 양육행동은 갈등을 감소시키지만 자율성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양육행동은 갈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통제는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리통제와 부모-자녀 갈등의 관련성이 별로 연구되지 못했다.

연구목적

부모-자녀 갈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많이 연구되어왔다. 그런데 부모-자녀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 부정적 발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탐색과 개발에 주로 집중되어 왔다(예, 김정수, 류진혜, 2001; 오영희, 2004, 2007; 장혜인, 박주희, 2014; 정주영, 2014). 그러나 청소년들이

부모와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또 부모-자녀 갈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별로 연구되지 못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영역이론에 기초한 많은 연구들이 미국, 중국, 홍콩, 이란 등 동서양 여러 나라의 청소년 자녀와 부모갈등을 분석해 왔는데 반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을 사회영역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없었다. 또한 부모-자녀 갈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초기나 중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갈등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입장의 차이는 청소년기의 자율성의 발달에 근거하기 때문에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부모-자녀 갈등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인적 이유로 설명하는 경향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여 갈등의 일반적 양상을 파악할 뿐 아니라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부모-자녀 갈등의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갈등의 일반적 양상과 갈등에 대한 이해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부모-자녀 갈등의 빈도, 강도와 내용을 살펴보고 연령차를 비교하였다. 둘째, 부모-자녀 갈등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사회영역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셋째, 부모-자녀 갈등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며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넷째, 부모-자녀 갈등이 심리통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부모지지와 행동통제와 함께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D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48명(남자 8명, 여자 40명)과 대학생 45명(남자 13명, 여자 32명)이 참가하였다. 이 연구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였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았다. 평균 연령은 고등학생들이 17.36세(표준편차 .99)이었고 대학생들이 19.59세(표준편차 .59)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각각 49.16세와 46.18세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41.9%), 대학교 졸업(32.3%) 순이었고, 어머니도 비슷하였다. 가정의 월수입은 300만원~350만원 미만이 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50만원~300만원 미만이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남녀 비율, 부모교육, 모교육과 월수입에서 차이가 없었다($\chi^2=1.99$, $df=1$, $p=.16$; $\chi^2=2.89$, $df=4$, $p=.58$; $\chi^2=1.57$, $df=4$, $p=.81$; $\chi^2=2.67$, $df=7$, $p=.91$). 또한 고등학생 96%와 대학생 98%가 부모와 형제로 구성된 핵가족에 속하여 가족 구성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측정도구

개인적 정보와 부모양육행동

개인정보는 연령, 학교, 성별, 가족상황, 부모의 교육정도, 가정의 수입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부모양육행동은 조주연(2010)이 번안한 Barber, Stolz와 Olsen(2005)의 부모양육행동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을 즐기신다'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지지(10문항), '내가 방과 후 주로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행동통제(5문항), '내가 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덜 다정하게 대하신다'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심리통제(8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각 문항에 대해 어머니의 행동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때에는 아버지에게 평정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고등학생 2명이었다. 조주연(2010)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부모지지 .90, 행동통제 .73, 심리통제 .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 .85, 심리통제 .80, 행동통제 .82이었다.

부모-자녀 갈등

부모-자녀 갈등은 문제체크리스트와 개별면접을 통해 조사되었다. 부모와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 갈등의 빈도나 강도와 같은 갈등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문제체크리스트를 실시하였다. 문제체크리스트(Issues Checklist)(Prinz et al., 1979; Robin & Foster, 1989)에서는 전화통화, 돈 쓰는 문제, 거짓말하기, 흡연 등과 같이 부모-자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 44개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은 각 문제에 대해 지난 2주 동안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지를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였고, 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정도 즉 갈등의 빈도를 '아주 가끔 이야기 했다'(1점)에서 '아주 자주 이야기했다'(4점)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또한 각 문제에 대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자신의 기분 즉 갈등의 강도를 '담담했다'(1점)에서 '아주 화났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그리고 이 밖에도 지난 2주 동안 부모와 갈등이 있었던 문제가 있다면 세 개를 더 밝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부모와 이야기한

빈도, 이야기할 때의 자신의 기분을 평정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되었던 전체 문제들 중에서 부모와 갈등이 가장 심했던 세 개의 문제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문제를 가지고 부모와 갈등을 더 깊이 분석하기 위해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Smetana, 1989; Smetana et al., 2003;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우선 청소년에게 각 갈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게 하였다. 둘째, 각 갈등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의 입장을 설명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휴학으로 인해 갈등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였고, 청소년에게 왜 휴학을 하려고 했는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왜 부모가 휴학을 못하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추론해 보게 하였다. 셋째, 각 갈등이 해결되었던 방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절충 및 타협, 별, 해결 못함의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넷째, 갈등해결방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를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1점)에서 ‘아주 공정했다’(3점)의 3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아주 나쁘다’(1점)에서 ‘아주 좋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절차

발달심리학을 전공하는 여성 연구자들이 K대학교의 조용한 실험실이나 강의실에서 청소년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개인 정보에 대한 문항들, 부모양육행동 척도와 문

제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부모와 갈등이 심했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연구자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참가자의 동의를 받아 모든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연구가 종료된 다음 모든 참가자에게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였다.

면접자료에 대한 코딩

각 참가자의 면접내용에 대해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녹취록을 사용하여 3명의 연구자들이 면접내용을 코딩하였다. 면접자료 가운데에서 개방형 질문이어서 코딩이 필요하였던 변인은 갈등이 가장 심했던 문제와 갈등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입장에 대한 추론이었다. 우선 갈등내용을 코딩하기 위해 선행연구(Smetana, 1989;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2003)와 참가자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학업 및 진로, 방 치우기, 취침 및 귀가시간, 활동 및 활동에 대한 통제(게임이나 흡연과 같은 활동의 선택이나 활동하는 시간 등), 대인관계, 집안일하기, 외모 및 건강, 돈 문제, 성격 및 행동방식(고집이 센 것, 부모님에 대한 말투 등), 기타의 10개 범주를 구성하여 코딩을 하였다.

갈등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입장에 대한 추론도 역시 선행연구(Smetana, 1989;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2003)와 참가자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7개 상위범주에 속하는 19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7개 상위범주는 도덕적 영역, 관습적 영역, 심리적 영역, 개인적 영역, 분별적 영역, 실용적 영역과 기타였다. 도덕적 영역에는 타인의 행복, 신뢰감/의무감, 공정함 하위범주가 포함되었고, 관습적 영역에는 사회적 통합, 사회적 비동조,

관습 및 규범, 예의, 책임감, 권위나 규칙에 대한 순종, 처벌회피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심리적 영역에는 대인관계, 심리적/성격적 이유, 비의도적 이유 하위범주가 포함되고 개인적 영역에는 자율성/개별화, 행동 허용성, 개인적 이유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분별적 영역에는 안전이나 건강과 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비사회적인 부정적 결과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다. 실용적 영역에는 실용적 필요나 결과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다. 일차적으로 참가자들의 반응을 19개 하위범주로 코딩한 다음, 다시 7개 상위범주로 재코딩하였다.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생 10명과 대학생 10명의 자료를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각자 코딩한 다음 코딩이 일치하는 비율과 Kappa 계수를 산출하였다. 갈등내용에 대한 두 명 코더들의 일치도는 87.78%이었고(Kappa 계수 .83), 일곱 상위범주에 따라 코딩한 갈등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입장에 대한 두 명 코더들의 일치도는 88.28%이었다(Kappa 계수 .85).

분석방법

첫째, 문제체크리스트에 나타난 갈등이 있었던 문제의 수, 갈등빈도, 갈등강도, 개인면접에서 나타난 갈등해결방법의 공정성과 느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이 변인들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개별면접에서 나타난 갈등이 가장 심했던 문제, 갈등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의 입장,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분석에서는 각 변인이 코딩되었던 범주의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비율분포의 편포성을 교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따라(Smetana, 1989;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이 비율에 arcsine 변형을 실시한 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갈등의 일반적 양상

100%의 참가자들이 지난 2주 동안 문제체크리스트에 제시된 문제에 대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체 44개 문제 가운데에서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문제 수는 적게는 2개(2.2%)에서 많게는 33개(1%)였다.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문제의 수, 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빈도, 이야기를 나눌 때의 강도를 연령에 따라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문제가 44개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갈등이 있었던 문제의 수는 많지 않았고, 갈등빈도는 4점 척도에서 2.07~2.43점 정도로 중간 정도였고, 갈등강도도 5점 척도에서 1.57~1.80점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연령에 따라 이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문제의 수는 고등학생이 13.31개, 대학생이 12.00개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빈도는 고

표 1. 문제체크리스트에 나타난 갈등문제의 수, 갈등빈도, 갈등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고등학생	대학생
갈등문제의 수	13.31 (6.51)	12.00 (5.33)
갈등빈도	2.43 (.44)	2.07 (.49)
갈등강도	1.80 (.59)	1.57 (.53)

등학생이 2.43회로 대학생의 2.07회보다 더 많았다($F(1,91)=13.75, p<.01$). 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의 강도는 고등학생이 1.80으로 대학생의 1.57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F(1,91)= 3.90, p<.10$). 즉,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 부모와 더 자주, 더 강한 강도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44개 문제 가운데에서 지난 2주 동안 부모와 이야기를 나눌 적이 있었던 상위 10개 문제와 %를 연령에 따라 제시하였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에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순위에 차이가 있었지만 방청소, 성적 및 진로, 취침시간, 전화통화, 용돈과 무엇을 먹는지 는 두 집단에서 모두 언급되었다. 이 밖에 고등학생들은 옷 던져놓기, 아침에 일어나기, 청결, 집안일하기로 부모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대학생들은 돈 버는 것, 음주, 사귀는 친구, 이성교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

표 2. 지난 2주 동안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상위 10개 문제와 %

	고등학생	대학생
방청소	81.3	전화통화 75.6
성적	77.1	용돈 68.9
취침시간	72.9	무엇을 먹는지 68.9
전화통화	68.8	성적 66.7
용돈	62.5	밖에서 돈 벌기 55.6
옷 던져놓기	62.5	취침시간 51.1
아침에 일어나기	56.3	알콜 음료 마시기 46.7
청결	52.1	사귀는 친구 46.7
무엇을 먹는지	52.1	방청소 44.4
집안일하기	47.9	이성교제 44.4

었다.

갈등이 가장 심했던 문제들

청소년들이 부모와 갈등이 가장 심했다고 선택하였던 세 가지 문제들의 내용을 10개 범주로 코딩하여 표 3에 연령에 따라 범주별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고등학생들은 성적 및 진로, 방 치우기, 취침 및 귀가시간, 활동 및 활동통제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많았고 대학생들은 성적 및 진로, 돈 문제, 대인관계, 외모 및 건강에 대해 갈등이 많았다. 갈등이 연령과 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타 범주를 제외하고 2(연령) \times 9(범주)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의 주효과와 연령 \times 범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F(8,712)=2.99, p<.01$; $F(8,712)=2.77, p<.01$). 따라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청소와 활동 및 활동통제에 대한 갈등은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표 3. 지난 2주 동안 부모와 갈등이 심했던 문제들의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고등학생	대학생
성적 및 진로	.23 (.23)	.16 (.20)
방청소	.18 (.20)	.06 (.13)
활동 및 활동통제	.12 (.18)	.04 (.11)
취침 및 귀가시간	.11 (.17)	.11 (.19)
대인관계	.10 (.20)	.14 (.21)
집안일하기	.07 (.16)	.10 (.21)
외모 및 건강	.07 (.14)	.12 (.22)
돈 문제	.06 (.13)	.15 (.22)
성격 및 행동방식	.03 (.11)	.08 (.23)
기타	.05 (.12)	.06 (.13)

더 많았고, 돈 문제에 대한 갈등은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에서 더 많았다($p < .05$). 성적 및 진로에 대한 갈등은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약간 더 많았고 집안일하기, 외모 및 건강, 성격 및 행동방식에 대한 갈등은 대학생에서 약간 더 많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갈등에 대한 자신과 부모입장에 대한 추론

갈등에 대한 자신과 부모입장에 대한 청소년들의 추론을 7개 범주로 코딩하여 표 4에 연령에 따라 범주별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이 추론하는 갈등의 이유가 연령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타 범주를 제외하고 2(연령)×2(대상; 청소년 자신 대 부모)×6(범주)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과 범주의 주효과와 대상×범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F(1,89)=9.70, p < .01$; $F(5,445)=18.45, p < .01$; $F(5,445)=44.23, p < .001$). 따라서 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용적 범주를 제외하고 모든 범주의 비율이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났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입장보다 부모의 입장을 추론할 때 도덕적, 관습적 및 분별적 범주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p < .01$). 이에 반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입장을 추론할 때에는 심리적 및 개인적 범주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p < .01$). 이처럼 청소년들은 갈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주로 심리적 및 개인적 이유로 설명하는데 반해 갈등에 대한 부모입장은 도덕적, 관습적 및 분별적 이유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런 경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갈등을 실용적 범주로 설명하는 정도는 자신의 입장이나 부모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갈등해결방법

표 5에 갈등해결방법이 시용된 비율, 갈등해결방법의 공정성 및 느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연령에 따라 제시하였다. 갈등해결이 연령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연령)×5(해결방법)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해결방법의 주효과와 연령×해결방법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F(4,$

표 4. 갈등에 대한 자신과 부모입장에 대한 추론의 범주별 비율 (%)

범주	고등학생		대학생	
	자신입장	부모입장	자신입장	부모입장
도덕적	.06 (.14)	.25 (.27)	.07 (.12)	.20 (.20)
관습적	.05 (.12)	.27 (.23)	.04 (.12)	.26 (.26)
심리적	.38 (.30)	.16 (.21)	.30 (.28)	.23 (.25)
개인적	.42 (.34)	.01 (.07)	.48 (.28)	.06 (.21)
분별적	.00 (.00)	.18 (.21)	.02 (.08)	.09 (.16)
실용적	.08 (.19)	.10 (.17)	.09 (.18)	.14 (.20)
기타	.02 (.07)	.02 (.08)	.01 (.05)	.02 (.09)

표 5. 갈등해결방법, 공정성과 느낌의 평균과 표준편차

		고등학생	대학생
갈등 해결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27 (.46)	.24 (.25)
	부모가 원하는 대로	.26 (.30)	.11 (.21)
	절충 또는 타협	.23 (.28)	.34 (.25)
	벌	.01 (.05)	.01 (.09)
	미해결	.27 (.31)	.30 (.25)
갈등해결방법의 공정성		1.89 (.50)	2.01 (.47)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느낌		3.18 (.88)	3.34 (.69)

360)=14.19, $p<.01$; $F(4, 360)=2.43, p<.05$).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비율이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더 높았고($p<.01$) 다른 해결방법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단순 주효과 분석으로 각 연령 내에서 다섯 해결방법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

과,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에서 벌이 다른 방법보다 덜 사용되었고($ps<.01$) 대학생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비율이 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방법보다 더 낮았다($ps<.05$). 청소년들은 갈등해결방법을 공정하고, 긍정적으로 느끼는 편이었고 이런 경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부모-자녀 갈등과 부모양육행동의 관계

부모-자녀 갈등과 부모양육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로 부모지지, 심리통제와 행동통제와 갈등문제 수, 갈등빈도와 갈등강도, 갈등해결방법, 갈등해결방법의 공정성과 느낌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고등학생에서는 부모양육행동은 갈등문제의 수나 갈등빈도와 상관이 없었지만 부모지지, 심리통제는 갈등강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33, p<.05$; $r=.43, p<.01$); 부모지

표 6. 부모-자녀 갈등과 부모양육행동의 관계

		고등학생			대학생		
		부모지지	심리통제	행동통제	부모지지	심리통제	행동통제
갈등문제의 수		.20	.14	.16	.30*	.12	.19
갈등빈도		.04	.18	-.16	.09	-.03	.16
갈등강도		-.33*	.43**	-.26	-.48**	.42**	-.43**
갈등 해결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16	-.08	-.17	.03	-.03	.03
	부모가 원하는 대로	-.08	.22	-.15	-.20	.15	-.14
	절충 또는 타협	.11	-.24	.10	.23	.09	.13
	벌	-.08	.34*	.06	-.17	.03	.13
	미해결	-.03	-.08	.00	-.05	.05	-.08
갈등해결방법의 공정성		.28	-.42**	.20	.44**	-.36*	.47**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느낌		.25	-.38*	.05	.17	-.37*	.21

* $p<.05$ ** $p<.01$

지를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들은 부모와 덜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부모의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화를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통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이 사용되는 정도, 갈등해결방법의 공정성과 느낌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34, p<.05$; $r=-.42, p<.01$; $r=-.38, p<.05$); 부모로부터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갈등해결방법으로 별이 많이 사용되었고, 청소년들이 갈등해결방법을 덜 공정하고 더 나쁘다고 여겼다.

대학생에서 부모지지는 갈등문제의 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여서($r=.30, p<.05$)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을수록 청소년들은 부모와 더 여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부모지지,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는 갈등강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48, p<.01$; $r=.42, p<.01$; $r=-.43, p<.01$); 부모로부터 심리통제를 받을수록 갈등강도가 높아졌고 부모로부터 지지와 행동통제를 받을수록 갈등강도가 낮아졌다. 세 양육행동은 갈등해결방법의 공정성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여서($r=.44, p<.01$; $r=-.36, p<.05$; $r=.47, p<.01$) 부모로부터 지지와 행동통제를 받을수록 청소년들은 갈등해결방안을 더 공정하게 여겼고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갈등해결방법을 공정하지 않고, 덜 긍정적으로 여겼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고등학생에서는 부모지거나 행동통제보다 심리통제가 부모-자녀 갈등의 더 여러 측면과 상관을 보였지만 대학생에서는 세 양육행동이 부모-자녀 갈등의 비슷한 측면과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해, 고등학생-부모갈등에서는 심리통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반해 대학생-부모갈등에서는 부모지지,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비슷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갈등의 일반적 양상을 알아보고 부모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체크리스트에서 나타난 지난 2주 동안 청소년들이 부모와 갈등이 있었던 문제의 수는 적은 편이었고, 갈등빈도도 보통이었으며 갈등강도는 낮은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부모와 갈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갈등의 빈도나 강도는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더 높았는데 이는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부모와 갈등이 더 많음을 시사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자녀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감소한다는 Laursen 등(199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전반적으로 갈등이 낮았던 것은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75% 정도가 여학생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둘째, 고등학생은 성적 및 진로, 방 치우기, 활동 및 활동통제, 취침 및 귀가시간, 대인관계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심했고 대학생은 성적 및 진로, 돈 문제, 대인관계, 외모 및 건강, 취침 및 귀가시간, 집안일하기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심했다. 고등학생의 갈등은 일부 범주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대학생의 갈등은 더 다양한 범주에서 일어났다. 특히 방 치우기와 활동 및 활동통제에 대한 갈등은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더 많았고, 돈 문제에 대한 갈등은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에서 더 많았다. 이 밖의 범주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부모와 가장 갈등을 심하게 보였던 문제는 성적 및 진로라는 점이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들이 성적으로 부모와 갈등이 가장 컸다는 결과(공인숙 등, 2005)와도 유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에서 심지어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성적 및 진로가 부모와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심천에 살고 있는 중국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부모와 가장 갈등이 컸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Yau & Smetana, 2003). 그러나 미국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갈등이 더 적었는데 이는 동양 문화권보다 서양 문화권에서 학업을 덜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 같다.

또 다른 주목할 사항은 대학생들이 돈 문제로 부모와 갈등이 많았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은 성적 및 진로문제와 비슷한 정도로 돈 문제로 부모와 갈등이 심했다. 이에 대한 청소년의 입장을 살펴보면 50%가 일하는 것이 좋아서,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이제 어른이니깐, 내가 번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다 등 주로 개인적 이유였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돈 문제가 여러 가지 현실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장한 어른으로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하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Allison & Schultz, 2004).

셋째, 청소년들은 부모와 갈등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부모입장을 다르게 추론하였다. 자신의 입장은 주로 개인적 및 심리적 이유로 설명하는 반면 부모입장은 도덕적, 관습적 및 분별적 이유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저녁에 늦게 자는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부모는 아침에 지각할 수 있거나 건강에 나쁘다고 여길 것

로 생각했다. 또한 휴학하는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휴학을 하고 싶은데 반해 부모는 철없는 짓이라고 여길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자율성의 발달을 반영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부모-자녀 갈등에서 자신들이 입장을 개인적 이유로 설명하는 경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를 지지하면서(Chen-Gaddini, 2012; Smetana, 1989; Smetana et al., 2003;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2003) 일상적 문제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입장의 차이는 문화권이나 시대와 무관하게 존재하면서 부모-자녀 갈등을 유발하는 보편적 요인임을 재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부모들은 역할 상 가정의 구조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하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부모-자녀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문제에 대한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서로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부모-자녀 갈등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청소년이 원하는 대로, 절충 및 타협의 방법으로 비슷하게 해결되었다. 청소년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거나 절충 및 타협이 이루어진 경우가 50% 이상이었는데 이는 부모와 갈등을 해결할 때 청소년의 입장이 비교적 많이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비율은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더 높았으나 다른 해결방식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아프리카계 미국, 홍콩, 중국에서는 갈등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결과와는

대조가 된다(Chen- Gaddini, 2012; Smetana et al., 2003;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 2003). 비록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연령,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에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원하거나 부모와 타협이나 절충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또한 미해결이 30% 정도로 상당히 많았는데 이 비율도 중국이나 아프리카 계 미국 청소년들에서 보다 훨씬 더 높았다(Chen-Gaddini, 2012; Smetana & Gaines, 1999; Smetana et al., 2003).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였다.

다섯째, 부모양육행동 가운데에서 심리통제가 부모-자녀 갈등의 여러 측면과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갈등의 강도가 높았고, 갈등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고, 청소년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청소년들이 갈등해결방식이 덜 공정하며 더 나쁘다고 여겼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부모의 통제, 엄격함,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 갈등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Assadi, et al, 2011; Deković, 1999; Smetana, 1995; Smetana & Gaines, 1999; Yau & Smetana, 1996)와 비슷하게 심리통제도 부모-자녀 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부모통제와 권위주의적 양육이 갈등의 빈도나 강도와 모두 관련을 보인 반면 심리통제는 갈등강도하고만 관련을 보였다. 심리통제는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통제이기 때문에 갈등빈도보다는 갈등강도와 더 큰 관련성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갈등빈도는 감소하지만 갈등강도는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Laursen et al., 1998) 부모의 심리통제가 청소년, 특히

후기 청소년들의 부모와 갈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모지지와 행동통제는 부모-자녀 갈등과 긍정적 관계를 보여서 부모로부터 지지와 행동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갈등의 강도가 낮았고, 청소년들은 갈등해결방법이 더 공정하다고 여겼다. 이런 결과는 부모의 온정이 갈등빈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와도 일치하였다(Yau & Smetana, 1996).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부모-자녀 갈등의 일반적 양상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유사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문제로 부모와 갈등이 많았고, 대학생은 돈과 관련된 문제로 갈등을 많았다는 차이점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상적인 문제로 인해 부모와 갈등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였다.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갈등에 대한 자신과 부모의 입장을 다르게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갈등이 해결되는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여서 다른 나라에서는 갈등이 부모가 원하는대로 해결되는 정도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였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25% 정도로 훨씬 낮았다. 청소년이 원하는 대로 갈등이 해결되거나 부모와 타협이나 절충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5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이 청소년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여 해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갈등이 미해결로 남는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적게는 9%에서 많게는 24%였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29% 정도로 더 높았다. 이는 요즘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정에서 부모권위와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면서 과거에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었던 많은 갈등이 미해결로 남겨짐을 시사한다. 특히 미해결과 같은 갈등해결방법이 청소년들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Branje et al., 2009)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장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데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부모-자녀 갈등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로 부모들은 도덕적 및 관습적 이유로 청소년들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반해 청소년들은 개인적 및 심리적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갈등에 대한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청소년들이 잘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교육할 뿐 아니라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함양함으로써 학교가 부모-자녀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부모-자녀 갈등의 일반적 양상을 밝혔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제한점과 더불어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하겠다. 첫째, 이 연구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청소년기 초기, 중기와 후기에 걸쳐 일어나는 부모-자녀 갈등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 부모와 갈등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갈등의 양상을 추가적으로 밝힌다면 본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여학생의 비율이 약

75% 정도였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이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인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부모-자녀 갈등이 낮았던 점은 여학생들의 높았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남자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갈등과 부모양육행동의 관계는 살펴보았지만 청소년이나 부모의 개인적 특성을 연구하지 못했다. 선행연구들도 주로 부모양육방식, 애착이나 의사소통과 같은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감능력이 부모-자녀 갈등에서 어떤 역할과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모-자녀 갈등을 완화시키고 청소년과 부모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예, Van Lissa, Hawk, Branje, Koot, Van Lier, & Meeus, 2015).

참고문헌

- 공인숙, 이은주, 이주리 (2005).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 및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925-936.
- 김정수, 류진혜 (2001). 부-자간 갈등에서 나타난 인지적 오류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8(2), 1-23.
- 오영희 (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59-77.
-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

- 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 이은경, 박성연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간 발달연구*, 18(4), 101-123.
- 장혜인, 박주희 (2014). 남녀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갈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해결능력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5(2), 171-189.
- 정주영 (2014). 부모-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연구*, 25(2), 237-263.
- 조주연 (2010). 부모 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영은,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개체화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2), 133-154.
- Allison, B. N., & Schultz, J. B. (2004). Parent-adolescents conflict in early adolescence. *Adolescence*, 39(153), 101-119.
- Assdi, S. M., Smetana, J., Shahmansouri, N., & Mohammadi, M. (2011). Beliefs about parental authority, parenting style, and parent-adolescent conflict among Iranian mothers of middle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5(5), 424-431.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2002). Reintroducing psychological control.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pp. 3-1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Stol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Serial No.282).
- Branje, S. J. T., van Doorn, M., van der Valk, I., & Meeus, W. (2009). Parent-adolescent conflicts, conflict resolution types,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0, 195-204.
- Chen-Gaddini, M. (2012). Chinese mothers and adolescents' views of authority and autonomy: A study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in urban and rural China. *Child Development*, 83(6), 1846-1852.
- Darling, N., Cumsille, P., & Martinez, M.L.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adolescents' beliefs about the legitimacy of parental authority and their own obligation to obey: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79(4), 1103-1118.
- De Goede, I. H., Branje, S. J., & Meeus, W. H. (2009). Developmental changes in adolescents' perceptions of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1), 75-88.

- Deković, M. (1999). Parent-adolescent conflict: Possibl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4), 977-1000.
- Eisenberg, N., Hofer, C., Spinrad, T. L., Gershoff, E. T., Valiente, C., Losoya, S., Zhou, Q., Cumberland, A., Liew, J., Reiser, M., & Maxon, E. (2008). Understanding mother-adolescent conflict discussion: Concurrent and across-time prediction from youths' dispositions and parenting. *Monograph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3*(2).
- Eric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 Norton.
- Fulgini, A. J. (1998). Authority, autonomy, and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cohesion: A study of adolescents from Mexican, Chinese, Filipino, and European background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782-792.
- Helwig, C. C. (2006). The development of personal autonomy through cultures. *Cognitive Development, 21*, 458-473.
- Laursen, B., Coy, K.C., & Collins, W. A. (1998). Reconsidering changes in parent-child conflict across adolescence: A meta analysis. *Child Development, 69*(3), 817-832.
- McGue, M., Elkins, I., Walden, B., & Iacono, W. G. (2005). Perceptions of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1*(6), 971-984.
- Nucci, L. (1996). The personal domain. In E. Reed, E. Turiel, & T. Brown(Eds.), *Values and knowledge*. Mahwah, NJ: Lawrence Erlbaum.
- Pelton, J., & Forehand, R. (2001). Discrepancy between mother and child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 I. Consequences for adolescents considered within the context of parental divor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6*, 1-15.
- Pettit, G. S., Laird, R. D., Bates, J. E., Dodge, K. A.,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 Prinz, R. J., Foster, S., Kent, R. N., & O'Leary, D. (1979). Multivariate assessment of conflict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other-adolescents dyad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91-700.
- Robin, A. L., & Foster, S. L. (1989). *Negotiating parent-adolescent conflict: A behavioral-family systems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 Shek, D. T. L. (1997). The relation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to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5*, 277-290.
- Shek, D. T. L. (1998).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9*(1), 53-67.
- Smetana, J. G. (1988).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9*, 321-335.
- Smetana, J. G. (1989).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 1052-1067.
- Smetana, J. G. (1995). Parenting styles and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during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2), 299-316.

- Smetana, J. G. (2000). Middle-class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and parenting practice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71*(6), 1672-1686.
- Smetana, J. G. (2006). Social-cognitive domain theory: Consistencies and variations in children's moral and social judgments. In M. Killen & J. G. Smetana(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pp.119-153). Mahwah, NJ: Erlbaum.
- Smetana, J. G., & Asquith, P. (1994).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and personal autonomy. *Child Development, 65*, 1147-1162,
- Smetana, J. G., Daddis, C., & Chuang, S. S. (2003). "Clean your room!"-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adolescent-parent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middle-class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6), 631-650.
- Smetana, J., & Gaines, C. (1999). Adolescent-parent conflict in middle-class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6), 1447-1463.
- Tucker, C. J., McHale, S. M., & Crouter, A. C. (2003). Conflict resolution: Links with adolescents' family relationships and individu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24*, 715-736.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Lissa, C. J., Hawk, S. T., Branje, S. J. T., Koot, H. M., Van Lier, P. A. C., & Meeus, W. H. J. (2015). Divergence between adolescents and parental perceptions of conflict in relationship to adolescent empathy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1), 48-61.
- Yau, J., & Smetana, J. G. (1996). Adolescent-parent conflict among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Child Development, 67*(3), 1262-1275.
- Yau, J., & Smetana, J. G. (2003). Adolescent-parent conflict in Hong Kong and Shenzhen: A comparison of youth in two cultural contex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3), 210-211.

원 고 접 수 일 : 2016. 02. 15.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4. 11.

최종게재결정일 : 2016. 04. 26.

Late Adolescent-Parent Conflicts and its Relations with Parenting Behaviors

Young-shi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ge differences in adolescent-parent conflicts and its relations with parenting behaviors were examined in 93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by administering the Issues Checklist and individual interviews. Conflicts were relatively few in numbers, moderate in frequency, and mild in intensity. However, conflicts were more frequent and intense in high school students than in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as the problem which both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had the most conflict with parents. The next problems were cleaning the bedroom, bedtime/curfew and activities in high school students and financial probl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ppearance and health in college students. Adolescents explained their own perspectives in conflicts primarily in terms of personal and psychological reasons whereas they explained their parents' perspectives in terms of moral, conventional and prudential reasons. Conflicts were resolved by adolescents giving in to parents, by parents giving in to adolescents and by joint resolution to the same extents. However, parents giving in declined with age. Among three parenting behaviors, psychological control displayed meaningful relations with conflict frequency, conflict intensity and conflict resolution in both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whereas parental behavioral control displayed meaningful relations with conflict intensity and conflict resolution in college students.

Key words : adolescents, adolescent-parent conflicts, social domain theory, parenting behaviors